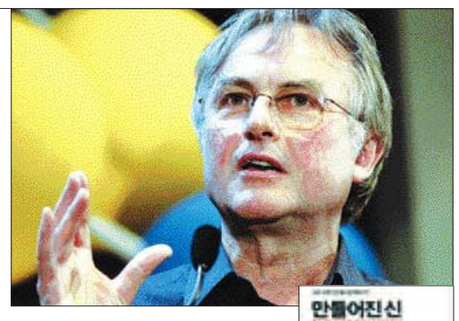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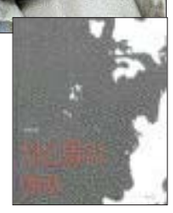
북스

Books

神 없는 사회가 더 희망적이다

당신들의 예수 류상태 지음 / **만들어진 신** 리처드 도킨스 지음





아프가니스탄으로 봉사를 떠났다 탈레반에 의해 납치된 분당 샘물교회 신자들로 한국 국민들은 불안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 성급한 네티즌들은 사태 발생 직후 동정론보다 "왜 싫다는 데 가서 굳이 선교를 하느냐"는 질책을 보냈다. 분명 선교가 아닌 봉사를 목적으로 떠났지만 이들의 궁극적 목표는 선교라는 생각에서다.

개신교의 공격적이고 경쟁적인 해외선교가 부른 참극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샘물교회 박은조 담임 목사는 두 차례에 걸쳐 성명서를 내고 "아프가니스탄 봉사활동을 전면 철수할 것"과 대국민 사과를 했다. 종교가 뭐길래….

'당신들의 예수'를 쓴 류상태씨는 "한국 교회여, 차라리 선교 활동을 포기하라"고 말한다. 류씨는 대광고 교목실장으로 근무하던 2004년, 학내 종교자유를 주장한 강의석 군을 지지하면서 그해 10월 목사직을 반납했다. 그 후 '한국 교회는 예수를 배반했다'(삼인)를 펴내 한국 주류 개신교에 통렬한 비판을 가했다.

이번에 출간된 책은 전작의 속편 격으로, "독선과 배타에 싸인 한국 주류 개신교, 그 괴물만은 반드시 죽여야 한다는 생각"이 책을 쓴 이유라고 밝히고 있다. 류씨는 교우들에게 교회에 다니기 싫으면 다니지 말라고 한다. "진정으로 섬기고 따라야 할 대상은 하느님이며 예수님이지, 교회와 목사가 아니"기 때문이다.

지난해 한 개신교계 NGO가 아프가니스탄에서 대규모 행사를 열었을 때, 행사 참여를 위해 입국한 한국 기독교인들이 아프가니스탄 정부에 의해 출국 조치당한 일을 예로 들며, "기독교라는 이름을 내걸지 않고 찾아오는 사람에게는 형제로 대해주지만 그들의 종교에 대해 도전하거나 훼손하려는 느낌이 들면 결코 용서하지 않는 사람들이 무슬림"이라고 말한다.

선교의 당위성에 대한 의문도 제기한다. 류씨는 성서에 선교를 독려하는 내용들이 많지만 사실은 그 구절이 기록되던 당시 교회의 요구가 반영된 것일 뿐이라고 주장한다.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는 예수의 말을 빌려, 도울 의사가 있으면 "그냥 돕자"라고 말한다. 〈삼인·9천800원〉

류씨가 한국 개신교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따졌다면, 30여년 전 출간한 '이기적인 유전자'에서 인간은 유전자의 꼭두각시에 불과하다는 주장으로 세계 과학계를 떠들썩하게 했던 리처드 도킨스는 종교 자체에 의문을 제기한다. 도킨스는 '만들어진 신'을 통해 "신은 존재하는가"라는 질문을 던진다.

그리고 노골적으로 무신론자가 될 것을, 만약 무신론자라면 커밍 아웃 할 것을 권한다. 도킨스는 서문에 "무신론자가 되고 싶다는 소망이 현실적인 열망이고, 용감한 행위라는 사실을 일깨우기 위해" 책을 썼다고 밝히고 있다. 저자는 "자살 폭파범도 없고, 9·11도, 런던폭탄테러도, 십자군도, 마녀사냥도, 인도 분할도,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전쟁도… 없는 세상을 상상해보라"고 말한다.

도킨스는 전작에서도 그래왔듯 '과학적으로' 신이 없음을 증명한다. 신이 존재한다는 가설이 우주에 관한 과학적 가설 중 하나로 모든 가설들처럼 회의적으로 분석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도킨스는 토마스 아퀴나스의 '증명', 파스칼의 내기 논증 등 신의 존재와 관련된 각종 논증들을 파헤친다.

도킨스는 "미국에서는 무신론자가 유대인, 흑인, 동성애자보다 낮은 지위에 있다"며 미국의 광적인 신앙을 신랄하게 비판한다. 그는 그동안 종교는 강자에게 지배 이데올로기로, 약자에게 삶의 위로이자 희망으로 사회적 기능을 해왔지만, 신이 사라진 이후 사회가 오히려 더 희망적이라고 역설한다.

〈김영사·2만5천원〉

/정상필기자 camus@kwangju.co.kr

소설로 파헤친 연암 글쓰기 비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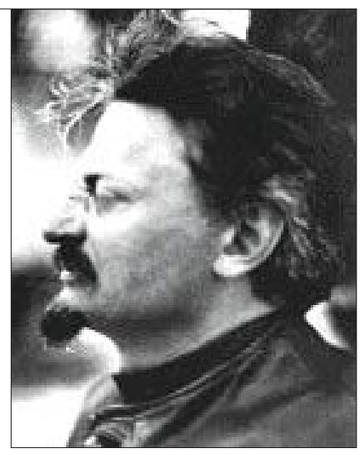
척박한 현실에서도 우리나라 인문학을 살찌우게 된 데는 연암 박지원(1737~1805)의 공이 크다. 연암은 조선 최고의 문장가답게 '과농소초(課農小抄)' 등 실학 관련 전문서적은 물론, '양반전', '허생전', '호질' 등 여러 편의 소설을 남겼다.

'연암에게 글쓰기를 배우다'는 연암의 글쓰기 비밀을 파헤치는 내용의 팩션(faction)이자 인문실용소설이다. 인문학과 이야기문학을 버무린 새로운 시도인 셈. 그래서인지 저자도 설흔, 박현찬씨 등 두 명이다. 저자들은 이 책의 집필에서도 '연암 따라하기'를 시도했다고 밝히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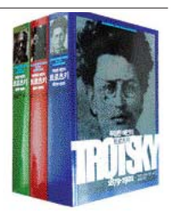
연암의 글을 둘러싼 표절 시비가 일어나자 아들 종채는 아버지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백방으로 노력을 아끼지 않는다. 그러던 중 종채에게 연암이 글 쓰던 시절을 다룬 한 권의 소설책이 전달된다.

〈예담·1만1천원〉

잊혀진 혁명가, 트로츠키



트로츠키 전기 3부작 아이작 도이처 지음



승자 위주의 역사서술 방식은 패자의 이름을 삭제한다. 공산주의 진영의 권력투쟁에서 낙오한 인물들도 예외는 아니다. 영국의 명예혁명, 미국 독립혁명, 프랑스 혁명과 더불어 세계 4대 혁명 가운데 하나로 꼽히는 러시아 10월 혁명에도 '패자'의 이름이 있다.

레온 트로츠키(Leon Trotsky)〈사진〉는 스탈린과 함께 혁명의 영웅이었지만, 철저히 지워진 인물이다. 반스탈린주의 운동을 펼쳤던 그는 당에서 제명된 후 소련에서 추방당한 뒤 스탈린이 보낸 자객에게 무참히 살해됨으로써 생을 마감했다.

사회주의 진영에서는 불손한 반혁명분자로, 자본주의 진영에서는 위험한 공산주의자로 살았던 그의 삶은 일반인들에게 알려져 있지 않다.

문학평론가, 정치평론가인 아이작 도이처가 쓴 트로츠키 전기 3부작이 완간됐다. '무장한 예언자 트로츠키'는 지난 1985년 출간됐다 절판됐으나, 다시 빛을 보게됐고 '비무장의 예언자 트로츠키', '추방된 예언자 트로츠키'는 이번에 첫선을 보인 연작이다.

저자는 트로츠키의 삶을 세 시기로 나눠 실음으로써 한 혁명가의 삶을 연대기로 재구성하고 있다.

'무장한…'은 유태인 지주의 아들로 태어난 트로츠키가 러시아 혁명 영웅으로 떠오르는 과정이 그려진다. 방대한 자료를 통해 재구성한 역사적 사실들을 통해 러시아 혁명현장과 진행과정을 살필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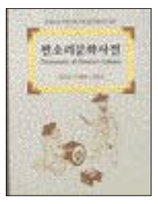
'비무장의…'는 레닌의 후계자로 꼽혔던 트로츠키가 스탈린과의 대결에서 패배함으로써 '인민의 적', '배신자'로 낙인찍히는 과정을 조명한다. '일국 사회주의'를 외쳤던 스탈린에 맞서 국제사회주의를 추장하고 관료주의에 맞서는 사회주의 사상가 트로츠키의 진면목을 엿볼 수 있다.

트로츠키가 망명지에서 살해되기 까지 과정을 그린 '추방된…'은 가족과 동지를 모두 잃은 참혹함에도 결코 좌절하지 않는 혁명가의 삶을 만날 수 있다. 그는 이같은 시련기에도 '날조를 일삼는 스탈린 일당', '배반당한 혁명' 등 저서를 출간, 철저하게 혁명가로서 삶을 살았다. 〈필맥·각권 2만원〉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땅콩 껍질속의 연가=영광 출신 소설가 송영씨의 1970년 말 작품이 30여년 만에 새롭게 출간됐다. 1979년 영화로도 제작된 적이 있다. 노총각인 김도일과 주리 커플, 오정선 박사 부부 등을 통해 사랑과 결혼이 뒤엉킨 시대의 풍속도를 보여준다. 〈바움·9천500원〉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쿨에너지=논객 강준만 전북대 신문방송학과 교수가 한국 사회의 새로운 미덕으로 '쿨함'을 설정하고 한국적 쿨함의 유형을 보이는 10인을 이야기한다. 이영애, 강금실, 손석희, 유재석, 박진영, 반기문 등 매혹적인 10명에게 10가지 쿨함을 엿본다. 〈인물과사상사·1만2천원〉



▲판소리문화사전=지난 2003년 유네스코가 지정한 세계구전문화유산 걸작 판소리의 집대성. 경희대 고전학술총서간행위원회가 '판소리문학 전집'(1997), '판소리문학 역주'(1996) 등에 이어 10년에 걸쳐 펼친 판소리문학 3대 사업의 결정판이다. 〈박이정출판사·6만원〉

▲29개의 키워드로 읽는 한국 문화의 지형도=한국출판마케팅연구소가 발행 중인 격주간 '기획회의' 200호를 기념해 다룬 특집을 책으로 엮은 것. 29명의 전문가들이 키워드로 상징되는 문화적 흐름에 대한 분석을 내놓고 있다. 〈한국출판마케팅연구소·1만6천원〉

▲민들레 공책='빛의제국'으로 유명한 온다 리쿠의 '도코노 이야기' 두 번째 책. 서랍에 사람들의 인생과 마음을 넣어 기록하는 하루타 일가의 이야기를 다룬다. 100여년 전을 시대적 배경으로 두고 있는 것으로 '빛의제국'에 등장한 미쓰노리의 조상들 이야기다. 〈국일미디어·9천800원〉

▲사육장 쪽으로=편혜영씨의 두 번째 소설집. 문예지에 실렸던 단편 소설 8편이 묶여 있다. 새 삶을 꿈꾸는 택배기사, 전원주택에 사는 소시민, 습관적으로 카드게임을 벌이는 도시 근로자들 등을 통해 일상의 섬뜩함을 보여준다. 〈문학동네·9천500원〉

▲영화음악은 나의 힘=음악 칼럼니스트 김관희씨가 한국의 영화음악가 9명을 만났다. '결혼은, 미친 짓이다'의 김준석, '꽃잎'의 원일, '박하사탕'의 이재진, '친절한 금자씨'의 조영욱씨 등을 만나고 대표작 2편을 친절하게 설명한다. 〈이매진·1만2천원〉

▲2007 올해의 추리소설 '안개 속의 살인'=한국추리작가협회가 올해의 추리소설 10편을 묶었다. 오랜만에 중편을 내놓은 김성종은 표제작 '안개 속의 살인'에서 장편 못지 않은 스케일을 보여준다. 이 밖에 현직 변호사이기도 한 강형원의 '최후의 심판' 등이 실려 있다. 〈화남Br·1만원〉

▲오늘이 보이는 세계사=부제가 '프랑스인의 당돌한 역사 읽기'다. 공동 저자 장 클로드 바로와 기욤 비고는 "역사를 모르고서 오늘날의 문제를 이해할 수 있나?"라는 질문을 던진다. 시대순으로 풀었지만 중간중간 오늘날 뉴스와 연결되는 것들을 꼽아 책에 흥미를 더했다. 〈푸른나무·1만5천원〉